

CEO 동정

호남고속철도 및 전라선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6일 호남고속철도 및 전라선 등 호남본부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둘러보고, 고품질의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게시판

금주의 주요뉴스(9.14 ~ 9.19)

- 권도업 장관 중동 수주 세일즈(매일경제 9. 14)
- 내년 SOC 예산 2조원 감소 예상(한국경제 9. 14)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철도 사업 '빨간불' (조선일보 9. 14)
- "살무손 비행기"에 맞먹는 시속 100km 열차 등장 (조선일보 9. 14)
- "발튀 인통해"...靑, 정책이행 확인 나섰다(동아일보 9. 14)
- 공기업 수장 잇단 발탁 건설사 CEO '능력 인종' (파이낸셜뉴스 9. 14)
- KTX 로템독점 시정하고 인적쇄신 단행(매일경제 9. 14)
- 달리던 세미올호 기관실사 연기...운행중단 소동(세계일보 9. 14)
- 호남철도 출범, 종착역 '차별논란' (전북일보 9. 14)
- "전남~제주 해저터널 서둘러야" (광주일보 9. 14)
- 철도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강원일보 9. 14)
- 언제까지 경제성 타령만 할 것인가(강원도민일보 9. 14)
- 김포도사철도 합의안 놓고 신경전 계속 (기호일보 9. 14)
- 부산진구 일대 철도시설이전 사실상 무산(국제신문 9. 14)
- 韓 철도 컨소시엄, 오만 철도 설계사사 통과(파이낸셜뉴스 9. 15)
- 경의선 공덕~DMC구간 내년 12월 개통(서울신문 9. 15)
- 도내 철도사업 절반 이상 '빨간불' (경기일보 9. 15)
- 충청 60개기관 내년부터 국감(충도일보 9. 15)
- "법값도 보고"... 얼어붙은 감사원(서울신문 9. 15)
- 부조리신고 보상금 2회로(서울신문 9. 15)
- 수인선 안전구간 지하화 1.3km확대 추진(수도일보 9. 15)
- 도내 철도사업 절반이상 '빨간불' (경기일보 9. 15)
- 여진마을 사해 왜? (충청신문 9. 15)
- 철도연 아파트 소음, 보상 나몰라라(충청신문 9. 15)
- 아산, 서해안 철도 설계안 변경 반발(대전일보 9. 15)
- 폐광지 경제지형 개발사업 국비 반영된다(강원일보 9. 15)
- 호남선KTX 서울역에서 내려야 한다(전북일보 9. 15)
-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을 수 있다(새전북일보 9. 15)
- 부산역 주차장 '조폭택시' 점령 여진(국제신문 9. 15)
- 한국철도시설공단-수출입은행 MOU(파이낸셜뉴스,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금강일보 9. 16)
- 인천공항서 평창까지 64분(수도일보 9. 16)
- 교외선 예비타당성조사 다시해(인천일보 9. 16)
- 경기북부 교외선 전철화 청신호(기호일보 9. 16)
- 원주~강릉 복선전철 1,600억 반영(강원일보 9. 16)
- 도 국회의원 당파 추월 예산 증액 총력전(강원일보 9. 16)
- 국내 최초 2층 좌석급행열차 명칭 공모(강원일보 9. 16)
- 위험천만 익산 평화유교, 국토부 검토만 수개월째(전북일보 9. 16)
- 2260억 효과-불안한 승객(경남일보 9. 16)
-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반자 '철도 GLORY운동'(경남일보 9. 16)
- "KTX-산천 잿은 고장 코레일도 책임 컸다" (문화일보 9. 17)
- 현대로템KTX-산천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화(경향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 9. 17)
- 시속 180km ... 춘천~상봉 44분 주파 (서울신문 9. 17)
- 청량리역 주변 명품복합단지로 탈바꿈 (서울경제 9. 17)
- 춘천가는 기차 '보따리' 캐져(강원도민일보 9. 17)
- "안락한 좌석 놓아진 시야...항공기 탄 기분?"(강원일보 9. 17)
- 요금·정차역 내일 결정 '초미 관심' (강원일보 9. 17)
- 춘천~속초 고속철예산, 국회서 반영해야 -사설(강원일보 9. 17)
- 오늘부터 2011국감 공기업 부채 '도마위에' (한국경제 9. 19)
- 공기업 빛 4년간 288조 급증 (한국경제 9. 19)
- 서울 용산역까지 69분 '춘천도 수도권' (경향신문 9. 19)
- 공공기관 학력제한 철폐 후 고졸자 채용비율 되레 감소 (서울신문 9. 19)
- 청량리역 차량정비고 녹색공원 조성(아시아일보, 우리일보, 대한매일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9. 19)
- 인천시, 경·수인선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우리일보 9. 19)
- 경인·수인선 역세권개발 추진(경인매일 9. 19)
- 미래 100년 준비 철도기술(현대일보 9. 19)
- "춘천~용산 열차이름 지어주세요?"(강원도민일보 9. 19)
- 여행객 찾는 명품관광지 실현(강원도민일보 9. 19)
- 남춘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본격화(강원도민일보 9. 19)
- 호남노선 KTX출발·종착역 서울역·인천공항까지 연결 (전북일보 9. 19)
- 노선 노상 호암리구 주민 뺄났다(충남일보 9. 19)
- 평창올림픽 연계사업 '윤곽' (충청일보 9. 19)
- 두 번의 철도공사 마를 세종날 판 (충청신문 9. 19)

공단-수출입은행 해외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해외철도사업 공동발굴 및 금융협력 -

공단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과 지난 15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해외철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철도사업 정보교환 ▲사업의 공동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 ▲업무연수 및 인적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해외철도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철도기술의 해외수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철도 기술경쟁력 못지 않게 금융조달 능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

이므로, 이번 수출입은행과의 협약 체결로 해외철도시장 진출 확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용환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발전, 석유화학 등 플랜트 산업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교통인프라 등으로 지원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철도공단의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이 수출입은행의 35년 금융노하우를 더해 해외수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사업 공동발굴과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금융분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2011. 9. 15)

김광재 이사장, 영남본부 현장 방문 - 경전선 및 고속철도 분기기 차단작업 현장 점검 -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6일 저녁 영남본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사업내 석전동 교량화 민원개소 및 구암동 합성동 소음·진동 민원개소 등을 둘러보고 현안사항을 파악한 후 현장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원칙에 근거를 둔 소신있는 업무추진과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원해결을 강조하였으며 공사추진시 터널붕괴, 추락사고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다음날 새벽,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밀착불량에 의한 신호장애 발생구간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경주 북쪽 방내터널 차단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아간 차단작업중인 현장 작업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현장에는 외국기업인 BWG, VAE와 삼성SDS, 삼표이엔씨의 기술자 및 공단 건설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전기사업단장, 영남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경부고속철도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관련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속철도 선로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히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영남본부 김지훈 기자)



공단 주관 한국컨소시엄 '오만철도 사전자격심사' 통과

공단이 주관사로 참여한 한국철도 컨소시엄이 오만 철도 설계/감리용역 사전자격심사(PQ) 참여한 33개 국제 컨소시엄중 제안서류를 초청받은 10개 컨소시엄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4단계로 구성된 오만 전국에 걸친 총연장 1000km의 여객 및 화물철도망을 2020년까지 구성하는 약 40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설계감리부분 용역 금액이 약6억, 같이 발주된 사업관리용역 금액이 약8억으로 추산되어 세계 유수의 철도전문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해 2010년 2월 당 철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4월 민간 합동 중동수주단을 파견하여 발주처 접촉 등 수주활동을 수행하였고, 공단이 주관사로 설계감리용역에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8개사, 사업관리용역에 건설관리공사 등 9개사의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년 6월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자격심사(PQ)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중동지역의 소요사태 등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이번 설계감리용역 선정업체 발표를 통해 사업추진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에 발표된 설계감리용역 이외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시 주관사로 참여중인 오만철도 사업관리용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사업본부 윤치만 기자)

경의선 공덕~DMC구간 내년 12월 우선 개통키로 - 일부구간 개통 후 급증하는 철도수요 충족 위해 -

공단은 당초 2014년 말로 계획되어있던 경의선 미개통 구간(용산~DMC 8.0km 구간) 중 공덕~DMC 6.1km구간을 내년 12월에 우선 개통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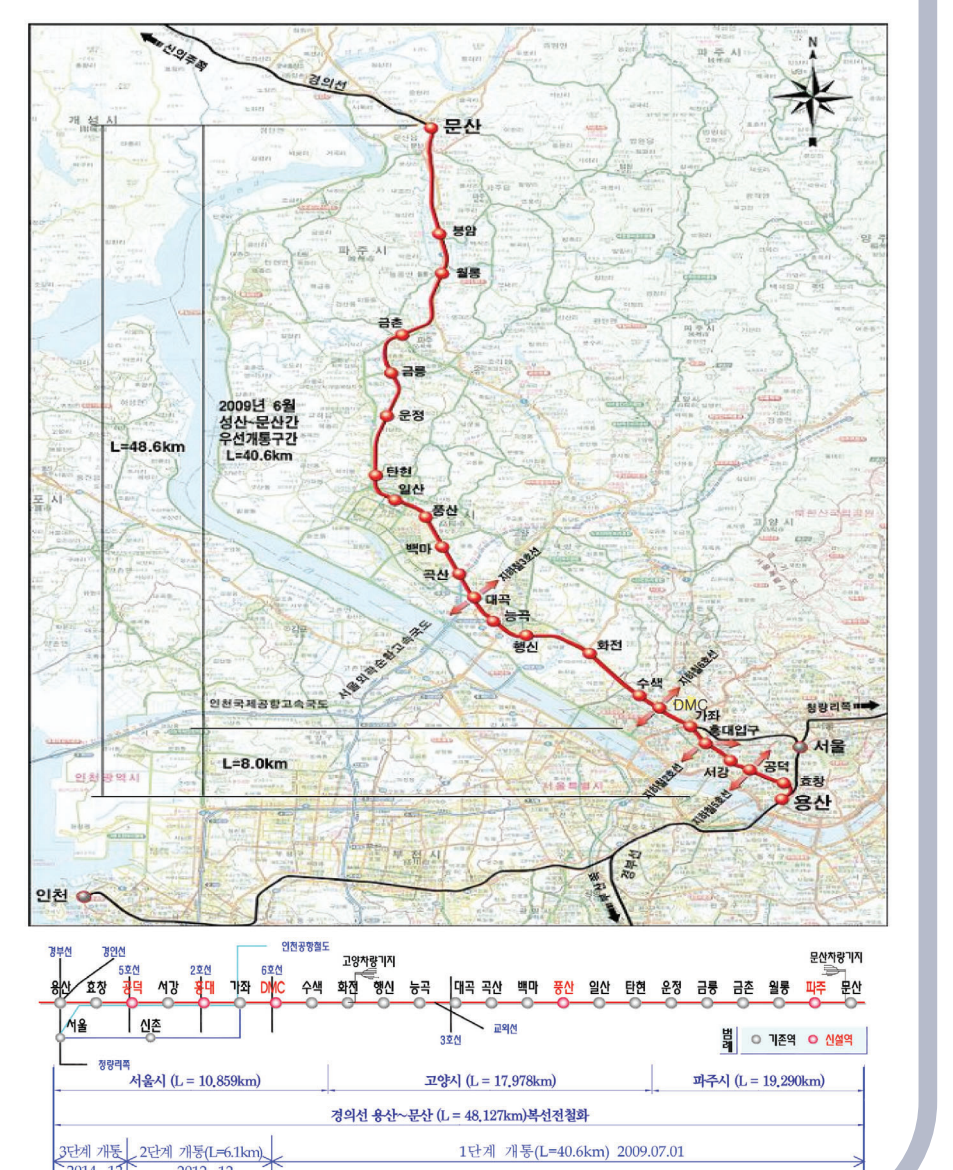
공단은 '09년 7월 DMC~문산구간이 개통된 이후 이용객이 하루 평균 6만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철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통 날짜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13년도에는 9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 구간을 조기 개통할 경우 경의선과 지하철 2호선, 5호선을 연결하는 환승역(홍대입구역, 공덕역)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은 15만 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사업(단선전철 48.6km → 복선전철 48.1km)은 총사업비 2조 2,476억원이 투입되어 '96년 착공, 그 중 일부인 DMC~문산 구간 40.6km를 '09. 7월 개통하였으며 내년 12월 공덕~DMC구간이 개통되면 용산~효창구간만 남게 된다.

공단은 용산~공덕구간에 대해서도 지하화 및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14년도에 계획대로 개통할 계획이다.

(건설본부 김대근 기자)



서해선 5개역사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 디자인, 에너지 절약, 친환경성 등 우수작품 선정 -

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5개 역사에 대한 설계공모 결과 출품된 103개 작품 중 103개역사에는 서해안의 미래지향적 의미를 표현한 해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 104역사에는 독특한 외관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105역사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강조한 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106역사에는 세련미를 강조한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을 선정했다.

김병호 설계기술실장은 "실시설계를 통해 금번 당선작을 다듬고 보완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친환경 역사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기술실 최두환 기자)

